

양동-토요장터

다음달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대인-買美시장

창작스튜디오에 아트페어전도

무등-문전성시

시장상인 DJ 방송 등 행사 다채

살 것도 많지만 볼 것은 더 많은 전통시장은 '문화시장'

광주지역 전통시장이 독특한 문화와 재미가 살아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물건만 사는 공간이 아닌 소통의 장과 문화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양동시장은 다음달이면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시장 상인들이 2010광주비엔날레 '양동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양동시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양동시장은 흥어 점포만 97개에 달하는데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흥어의 90%가 이곳을 거쳐간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 옥상에 '홍어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흥어삼합, 흥어전은 물론 흥어 샐러드 등 흥어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요리를 개발하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 음식을 선보이는 '다문화 행복장터'와 아시아 각국의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다문화 공방'도 운영한다.

2010비엔날레 개막(9월 3일)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 중심도로(250m)에서 '양동시장 토요일'을 열고 수작전(秀作展)·만물전(萬物展)·토요경매·시

장공작소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등시장은 오는 7일부터 매일 한차례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이 DJ로 나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 '하하 라이브 투맨쇼'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프로그램은 각 점포의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고, 영상으로도 제작해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물건을 구매할 고객에게 다도체험, 액세서리 만들기, 영화 감상 등 시장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하하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열어 사진속 모습을 재현해보는 '나의 청춘, 나의 꿈' 이벤트를 진행해 무등시장 달력도 제작할 계획이다.

초보 주부, 다문화 가정 주부에게 살림의 지혜를 전수하는 '사람의 기본왕' 프로그램은 비롯해, 시장 상인이 1일 선생님이 돼 어린이들에게 채소, 생선 등에 대해 알려주는 '○○가게 사장님의 어린이 자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9월부터 진행된다.

대인시장은 2008 비엔날레 북덕방 프로젝트 이후 문화예술장터인 '매미(買美)시장'으로 더욱 유명하다. 시장 내 빈 점포

에는 국내의 작가 25명이 창작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2008년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재래시장 아트페어인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전이 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대인예술프로젝트 '매미(買美)시장-호접지몽'을 벌이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호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토요장터를 비롯해 각종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이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한여름밤 무등야구장 열기

후반기 KIA의 신바람 행진이 이어지면서 3일 LG와의 시즌 14차전이 열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만3400명의 관중이 찾아 스탠드를 가득 채웠다. 올 시즌 8번째 만원이다. > 관련기사 18면

광주시, KIA에 새 야구장 250억 투자 요청

KBO도 투자유치 협조키로...24일 2차 공청회서 부지 확정

광주시가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해 기아타이거즈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250억원의 자본 투자를 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에 본격 나섰다. KBO도 민간투자 유치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3일 낮 광주시 내 한 식당에서 유영구 KBO 총재와 만나 광주 야구장 신축계획을 설명하고 민간투자 유치와 국비 확보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 총재는 광주시의 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해 "야구인을 대표해 감사드리다"며 "기아타이거즈구단이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어려울 경우 제3의 투자자 유치를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총재는 광주 야구장이 명실상부한 시민구장으로서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성금을 기탁한 시민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이나 불록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기아타이거즈 구단에 새 야구장 건립에 250억원 가량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야구장은 2만5000석 규모의 개방형 구장으로 사실상 결정됐으며, 재원과 부지 마련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져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 착수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새 야구장 건립에 모두 1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국비 500억원과 시비 250억원, 민간 자본 250억원을 조달해 총담할 예정이다. 이 같은 비용은 시유지에 들어선 무등경기장을 리모델링한 경우를 추정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다른 장소에 새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비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달 24일 '새 야구장으로 무등경기장 부지가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2차 공청회를 가진 뒤 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야구장 주차장 이용객을 장애인이나 여성 등으로 한정하고, 야구장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해 500~700m 정도를 걸거나 자전거를 통해 야구장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9월초까지 무더위

올해 무더위가 9월 초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7월 말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오래 머물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 9월 초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은 9월 초순까지 평년기온(24~25도)보다 높은 무더운 날이 많았으며, 강수량은 평년(197~291mm)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한반도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부근 적도 해역에서 강한 대류현상이 발생, 고기압 에너지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져 지난 7월 광주의 평균기온은 26.3도로 평년에 비해 0.8도 높았으며, 특히 한달 중 평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은 옛새를 제외한 25일이나 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박지원

7·28 재보선 패배 이후 심각한 저지판을 겪어온 민주당이 지도부 전원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구성, 내홍이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정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상임 고문, 천정배·김효석·박주선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도 조만간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당권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 저녁 최고위원회를 열어 7·28 재보선 패배 수습과 당의 안정을 위해 정세균 대표와 함께 다른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고 임시 지도부 성격인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은 비대위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김태년·박기춘·박병석·신계륜·조영택·최영희·홍영표·최철국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 추천 몫 두 자리는 강창일·박영선 의원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